

광로 접합용 광학접착제 세계적 기술력 보유

“최첨단 광섬유 코팅 기술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라”

루벤틱스(대표 오정현)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필수적인 광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광로 접합용 광학접착제 전문 기업이다.

기술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삼성화학페인트에서 광통신용 신소재 개발을 위해 분사됐다.

오정현 사장은 “한국의 경제는 20세기 후반부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경제의 한축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최근 IMF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아킬레스건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품산업의 빈약성이다”고 말하며 루벤틱스가 이러한 국내 부품산업 도약에 일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화학페인트(대표 오주언 회장)는 1973년 스크린 잉크 전문업체로 출발, 현재는 플라스틱 도료, 피혁용 마감도료, UV페인트, 광학용 신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 1987년 부설 연구소를 설립, 현재는 전임연구원이 81명으로 중소기업으로는 국내에서 최상위권의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술제일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세우고 열악했던 시절부터 부단히 원칙을 지키며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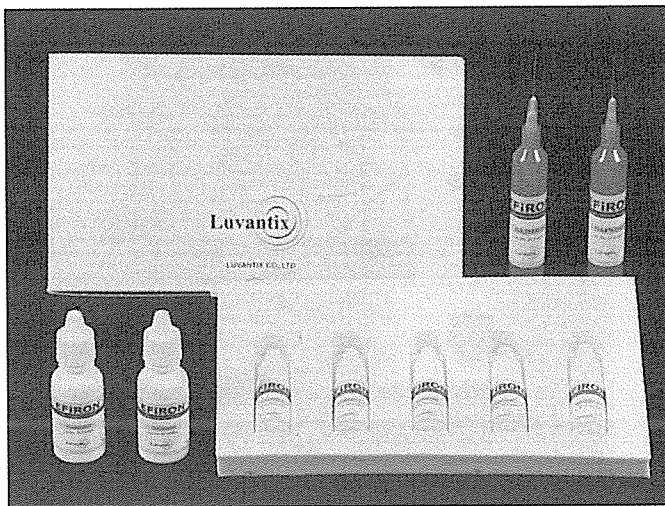
삼성화학페인트는 중소기업 특유의 기동성 및 변화 적응력을 살리고 집중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페인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광부품용 신소재를 담당할 LUVANTIX를 설립, 최고의 광부품용 화학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광경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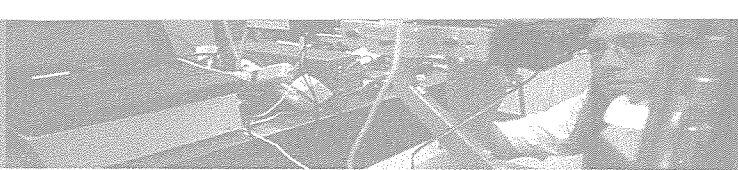
루벤틱스는 액체상태로 있는 코팅제, 페인트, 접착제 등을 고체인 필름으로 만들기 위해 열 대신 자외선을 사용하는 “광경화(Ultra-Violet Cure)”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이다.

광섬유 리본용 코팅 재료, 광패키징 광학접착제, 광학용 실리콘 하드코팅 분야도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루벤틱스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 고객이 많다.

루벤틱스의 이같은 약진은 광소재와 신소재 부문을 내부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수년 전부터 KAIST, KIST,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 화학연구소, 전자부



▲루벤틱스가 개발한 광로 접합용 광학접착제



품연구원 등의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해 제품과 특허 등의 결과물을 냈으며 삼상전자, 머큐리(전 대우통신) 등의 회사들과도 공동개발 및 국책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낸 결과다.

오랜 연구개발 끝에 고부가가치 제품인 「광경화형 광학 접착제」개발에 성공했다.

이들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광통신 부품 및 재료기술의 본고장인 일본에 루벤틱스 재팬이란 합작법인을 설립해 후지제록스, 후지쿠라, 마쓰시다, 야스다 등 일본의 선진 광패키징 업체에 루벤틱스의 제품과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되었던 OFC2001에 참가한 이 회사는 이곳에서 큰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세계 각국으로부터 샘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1월에는 일본 광전 문잡지인 OPTCOM에서 이 회사를 언급하면서 일본 내에서 한국 광부품산업을 경계하는 기사가 실려 한국 광부품 산업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OFC2001 참가해 큰 호평받아

루벤틱스의 광섬유용 광경화형 코팅 레진은 초속 30m의 고속으로 진행되는 코팅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외선(UV)을 이용, 1백만분의 1초만에 경화, 코팅되는 신기술 개념을 채택했다.

이 제품은 전세계 세번째로 개발된 것으로 광부품 생산의 핵심 원재료다. 이와 관련된 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 최근에는 중국, 인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세계시장은 7천8백억원 규모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대한전선 머큐리(구 대우통신) 등 광섬유 전문업체들을 비롯한 광부품 업체들로부터 수요가 계속 밀려들고 있다.

오정현 사장은 “오랜 공동연구개발 끝에 국산화에 성공한 이 제품을 국내시장은 물론 독점기업들의 횡포에 시달려 온 아시아 및 해외 업체들에게도 공급해 수출시장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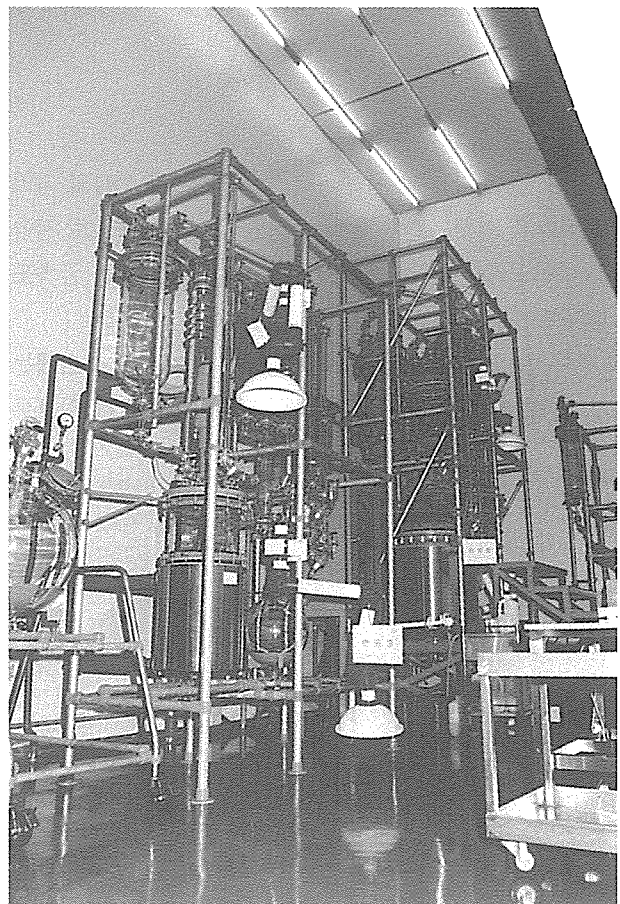
루벤틱스의 「광경화형 광패키징용 접착제」는 광시그널이 통과하는 광로접합 및 렌즈 고정 등 1천분의1mm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곳에 접합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이제품은 열 경화형 선진기업 제품에 비해 경화시간이 현저히 짧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광부품 회사를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NTT-AT, 미국의 놀란드가 개발한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정현 사장은 “루벤틱스재팬에 이어 루벤틱스USA, 루벤틱스타이완, 루벤틱스중국 등 지속적으로 외국기업과의 합작사업을 추진해 수출기업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다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취재 / 윤희진 기자〉



▲루벤틱스의 클린룸